



일본, 출생아 수 감소에도 ‘영유아 식품 시장’은 견고

일본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출생아 수의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해온 일본 영유아 식품 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대 등에 따른 육아 환경 변화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외출 자제에 따른 재택 시간 증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켰으며, 액상분유(液狀粉乳)*나 베이비푸드(Baby food) 등의 구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액상분유(液狀粉乳) : 우유를 주원료로 유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첨가하여 멸균 처리한 액체 형태의 조제분유(調製粉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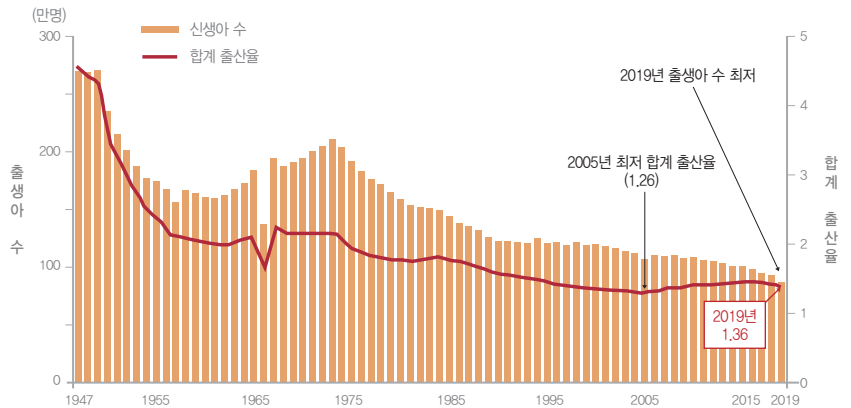
일본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 추세

일본의 출생아 수는 1973년 209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출생아 수는 86만 5,2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8년 91만 8,400명 대비 5만 3,161명 감소한 수치로 출생아 수 조사를 시작한 1899년 이래 가장 낮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또한, 합계 출산율*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은 1.36%으로 전년도 1.42% 대비 0.06 포인트 하락, 일본 내 출생아 수 감소는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계 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일본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



출처 : 후생성 인구동태조사

올해 조제분유는 생산량·수출량 모두 증가 추세

2019년 일본 조제분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2만 7,337톤으로 출생아 수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본 국내 및 해외 수요가 확대되면서 1~8월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10.0% 증가한 1만 9,216톤을 기록, 당분간 수요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연간 조제분유 생산·수출량 및 유아 1인당 소비량 추이]

연도	생산		수출		수출비율 (%)	일본 국내용 생산량		유아 1인당 소비량(kg)	비고
	수량(t)	전년 대비(t)	수량(t)	전년 대비(t)		생산-수출(t)	전년 대비(t)		
2008	30,197	110.5	2,884	215.4	9.4	273,535	95.2	24.3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오염사건
2009	34,914	115.6	6,644	233.6	19.0	28,270	103.4	25.7	
2010	32,942	94.4	7,822	117.7	23.7	25,120	89.2	22.8	미야자키현(宮崎県) 구제역
2011	27,559	83.7	2,865	36.6	10.4	24,694	98.3	22.9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
2012	23,914	86.8	1,002	35.0	4.2	22,912	92.8	21.4	
2013	22,914	95.8	1,249	124.7	5.5	21,665	94.6	20.4	
2014	26,659	116.3	2,384	190.9	8.9	24,275	112.0	23.4	4월, 소비세 인상(5→8%)
2015	26,309	98.7	3,243	136.0	12.3	23,066	95.0	22.2	
2016	27,657	105.1	4,818	148.6	17.4	22,839	99.0	22.6	4월, 쿠마모토(熊本) 지진
2017	26,712	96.6	5,102	105.9	19.1	21,610	94.6	22.1	
2018	27,773	103.9	5,758	112.9	20.7	22,015	101.8	23.2	서일본호우, 홋카이도(北海道) 지진
2019	27,337	98.4	7,389	128.3	27.0	19,948	90.6	22.2	동일본태풍

출처: 일본식량신문

일본의 조제분유 수출량은 28.3% 증가한 7,389톤(2019년)으로 나타나 8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수출비율도 27.0%에 달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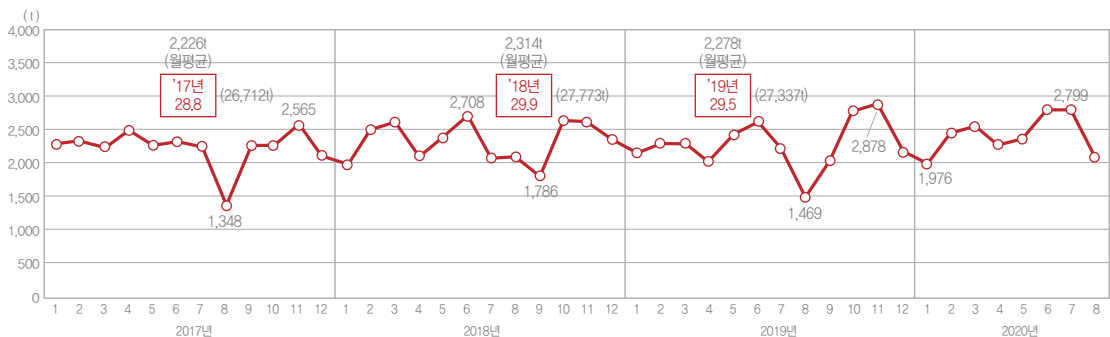
일본 국내 소비는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8월 일본 국내 소비용 조제분유 생산량은 1만 2,943톤으로 전년을 웃돌았으며, 유아(乳兒) 1인당 소비량은 22.2kg으로 일정 수준의 소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매년 호우,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7월 서일본 호우와 같은 해 9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발생한 지진 등의 자연 재해로 조제분유 수요가 증가했다. 2019년에는 8월 큐슈

(九州)지역의 호우, 9월에는 치바현(千葉県) 등이 태풍 15호(파사이, FAXAI)의 피해를 입어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조제분유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 올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조제분유 소비 동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제분유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유행 초기 휴지와 같은 생필품 등의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조제분유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가정 내 비축용으로 조제분유를 사재기했다. 4~5월에도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선언으로 쇼핑 등 외출 횟수를 줄이기 위한 조제분유 사재기 현상이 다시 발생했으며, 모유 수유 가정에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비축용으로 구매가 늘어났다. 또한, 조제분유 구매도 기존의 드럭스토어나 소규모 판매점과 같은 오프라인 점포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 활용이 증가되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월평균 조제분유 생산량 추이]



출처: 일본식량신문

* □인 연평균 생산량은 1973년 평균을 100(92,800)으로 가정했을 때의 비율

판매 2년째 맞이한 일본 액상분유는 활용성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

올해로 일본 내에서 판매가 시작된 지 2년째를 맞이한 액상분유는 해외 조제분유 시장 내 점유율이 10~20%로 추산된다. 일본에서는 아직 5%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재해 대비 비축용이나 외출 시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성을 배경으로 판로가 확대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외출 자제의 영향으로 판매가 다소 주춤했으나, 신규 액상분유 출시 등에 힘입어 외출용 외에도 가정에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규 수요 및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1년에 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아용 식품 규격이 '분유(粉乳)'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8년 8월 후생노동성이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후생성령'을 개정하여 일본에서도 액상분유를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듬해인 2019년 3월 일본에서 첫 액상분유가 출시되었으며, 일본 정부와 관련 단체, 제조사의 '유아용 액상분유 보급을 생각하는 모임(乳児用液体ミルクの普及を考える会)' 등을 통해 액상분유 인지도 제고 및 소비 확대를 추진해왔다. 액상분유 보급은 여성의 육아 부담 경감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상온에서 장기보관이 가능하여 재해나 외출 시 수유(授乳)에 대한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액상분유 제품]



제조사 에지키 글리코 (江崎グリコ)	제조사 메이지 (明治)	제조사 유키지루시 빈스토크 (雲印雲印ビーンスターク)
제품명 아이크레오 아기밀크 (アイクレオ赤ちゃんミルク)	제품명 호호에미 라쿠라쿠밀크 (ほほえみらくらくミルク)	제품명 액체밀크 스코야카M1 (液体ミルク すこやかM1)
발매 연월 2019.03 용량 125ml 가격 200엔 포장 재질 종이팩 상미 기한 6개월	발매 연월 2019.03 용량 240ml 가격 215엔 포장 재질 스틸캔 상미 기한 14개월	발매 연월 2020.04 용량 200ml 가격 215엔 포장 재질 스틸캔 상미 기한 12개월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베이비푸드 시장은 잠재 수요 확보가 시장 확대 관건

일본베이비푸드협회(日本ベビーフード協議会)의 생산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일본 베이비푸드 생산량은 1만 5,010톤이며 판매 금액은 302억엔(약 3,272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아이가 먹는 음식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베이비푸드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적었으나 최근에는 맞벌이 세대 증가에 따른 가사·육아노동 경감 등을 이유로 시판용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베이비푸드는 위생적인 조리 환경

과 이용 편리성을 앞세워 유아(幼児) 1인당 소비량·이용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성장 속도는 다소 더딜 것으로 보이나 간편함과 높은 영양을 이유로 시판 제품 활용에 거부감이 없는 등 육아에 대한 관점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젊은 부모 세대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상품과 활용 제안 등을 통한 잠재 수요 확보가 시장 확대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